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wellings of the Korean Diaspora of Uzbekistan*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이 영 심
교 수 이 상 해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YoungShim Lee
Professor : SangHae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요약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

Most of the Korean diaspora who lived in Yunhaeju moved to Central Asia in 1937 following the policy of deportation of Russia. Uzbekistan is the representative place for Korean diaspora to have settled down in Central Asia at that time and most Korean diaspora in Central Asia are living in Uzbekistan now. Korean diaspora have maintained a traditional way of living for 140 years without a deep relationship with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dwellings of the Korean diaspora of Uzbekistan in Central Asia by visiting their houses and conducting interviews.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ing: 1) The houses of the Korean diaspora in Uzbekistan in early times consisted of 2-3 bedrooms with Gudle. Gudle is the most traditional element of the Korean diaspora's house and it has been used as a place for gathering family members. 2) Korean diaspora's houses in Uzbekistan were built according to Russian and Uzbek style but most of the Korean diaspora have a mixed style with traditional Korean elements of living. 3) The changing process of planning and building codes of apartments in Uzbekistan is similar to that in other CIS nations and all of Russia. 4) Korean's food style is a mixture of Korean, Russian and Central Asian foods. Kimchi and Jang (bean paste) are essential for most Koreans and most Koreans are making these at home. 5) Most Koreans

Corresponding Author: YoungShim Lee,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300 ChunChun-dong, Jangan-gu, Gyeonggi-do,
Korea Tel: 82-31-290-7577 E-mail: yslce99@hanafos.com

* 본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 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have maintaine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Uzbek people and Koreans are very active in getting along well with all. This enables them to exchange their culture eventually in various parts. This study could be the first step to supply basic information for the study of the Korean diaspora in Uzbekistan. Deeper research over a wider range is needed in Russia.

주제어(Key Words): 중앙아시아(Central Asia),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한인동포(Korean Diaspora), 혼합생활양식(mixed style of living), 전통생활요소(traditional elements in living), 문화 교류(culture exchange)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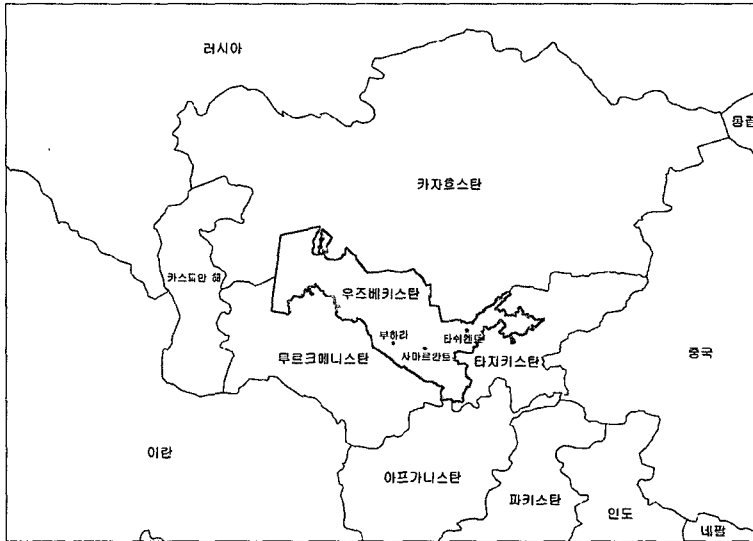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접해있고 남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북서쪽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동, 서양의 문화와 산물을 교역하는 통로의 요충에 입지하여 고금을 통하여 민족의 이동과 성쇠가 복잡하였다. 17세기 중반 제정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점차로 식민지화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중반 러시아에 편입되었고 1924년 10월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베크 인(71%)을 비롯하여 러시아 인(8%), 타지크 인(5-6%), 카자흐 인(4%), 타타르인(25%)과 카라칼팍 인(2%) 등 약 100여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한인동포, 즉 고려인은 전체의 약 1%인 약 20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한인인 1897년 페르가나 주에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는 고려인 3명이 거주하였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으며 1922년에는 이미 고려인들이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립민속박물관, 1999).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대거 이주한 계기는 1937년 러시아 정부가 행한 강제이주에 의해서였다. 이 때 약 18만 여명의 고려인들이 연해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1938년의 2차 이주로 중앙아시아 각지와 기타 러시아 지역으로 분산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까지 고려인들은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1991년에 구 소련이 와해되면서 우즈베키스

탄을 비롯한 구 소련의 11개 공화국들이 각기 독립하였다. 1980년부터 민족주의와 이슬람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던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강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고려인들이 연해주를 비롯한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변 국가들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려인들의 이주 움직임은 어느 정도 잦아든 상태이다.

주거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된 실체이다. 또한 주거 문화는 특정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며 변화된 환경에서도 그 중심 요소가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민족의 주거 문화에 대한 탐색은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뿐 아니라 전통의 지속성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역사는 19세기 초반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40여년에 이른다. 러시아의 고려인들은 긴 시간 동안 한국과 밀접한 접촉이 없었으나 생활 속에서 나름의 전통을 지속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1937년 강제이주를 통하여 고려인이 대거 이주하였고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와 주생활을 조사하여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한국의 주거 문화가 어떻게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의 주거 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



〈그림 1〉 우즈베키스탄 지도

여 탐색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전통 요소에 대한 탐색과 그것을 지속하는 방법 그리고 현지 문화와의 절충에 대한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주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사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4년 1월 30일-2월 11일 사이에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심 지역이면서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타쉬켄트 그리고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이었다. 타쉬켄트에서는 고려인의 주요 거주지인 콜호즈(협동농장)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하였는데 아흐마드 야사비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드미트리 콜호즈 세 곳이 중심 대상지였다.¹⁾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10가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 6가구였다(표 1).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구 소련시대의 기본 학제

인 10학년을 이수하였다.²⁾ 대부분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이는 주업인 동시에 자급자족의 기반이 된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자급자족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중간 정도의 소득계층으로 평가되었다.³⁾ 방만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면접을 행하였으며 각각의 주택에 대한 사진촬영과 실측을 병행하였다. 면접에 사용한 질문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 사용방식, 식사와 취침, 단란 행위 등에서의 좌식과

1) 아흐마드 야사비 콜호즈 3가구, 드미트리 콜호즈 2가구, 김병화 콜호즈 2가구를 조사하였다.

2) 구 소련 시대의 기본 학제는 10학년이었으나 흐르시초프 시대(1953년)이후 11학년제로 바뀌었다.

3)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남자는 60세부터 여자는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점차로 경제가 어려워져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길러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 있었다. 구 소련 시대에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이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에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어 그 어려움이 더하다.

〈표 1〉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특징

주택형태	이름	성별/나이	가족구성	첫 정착지	주택소유	난방 방식	연료
단독주택 (땅집)	최계나지	남/50	부부, 손녀	우즈벡	자가	없음	없음
	양나젤다	여/67	부부	우즈벡	자가	온수난방(구들)	가스
	박다찌아나	여/76	부부	우즈벡	자가	온수난방(구들)	가스
	최일리아	남/69	혼자사심	우즈벡	자가	온수난방(구들)	가스
	김발렌티나	여/67	부부, 손녀	카자흐	자가	온수난방	가스
	김알렉산드라	여/74	부부	우즈벡	자가	온수난방, 구들	가스
	김알렉산드라	여/69	부부	카자흐	자가	온수난방(구들), 구들	가스
	손보리스	남/70	부부, 아들부부, 손자2	우즈벡	자가	온수난방	가스
	리철수	남/78	부부	우즈벡	자가	온수난방(구들)	가스
아파트 (층대집)	김안토니아	여/72	부부, 작은아들	우즈벡	자가	온수난방(구들), 구들	가스
	한빅토르	남/70	부부, 작은아들, 손녀	카자흐	자가	중앙난방	가스
	박라이사	여/50	혼자사심	우즈벡	자가	중앙난방	가스
	장라이사	여/64	부부	우즈벡	자가	중앙난방	가스
	김안드레이	남/80	할아버지, 아들부부, 손자	우즈벡	자가	중앙난방	가스
	최부야	여/75	부부	우즈벡	자가	개별난방	가스
	박로자	여/53	부부	우즈벡	자가	중앙난방	가스

〈표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지역별 인구 현황

(단위: 천명)

지역	인구	지역	인구
타쉬켄트 시·주	120,557	시르다리아 주	9,893
칼라칼팍스탄 공화국	7,430	페르가나 주	6,493
안디잔 주	2,777	호레즘 주	4,845
사마르칸트 주	6,514	기타 지역	17,523
수르한다리아 주	1,009	총 인구	177,041

(출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01 PP.176~177)

*구들은 재래식 구들을, 온수난방(구들)은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매입한 개량형 구들을 의미함.

입식의 정도, 의복과 음식 그리고 관습 면에서 전통 요소의 지속 정도, 주택 형식별 난방 방식과 주거관 리비용, 그리고 우즈벡 인을 비롯한 타 민족과의 친 분 정도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주거의 변화 과정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1937 년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약 18만 여명이 중앙아시아

아로 이주하였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수는 대략 16,507세대(74,5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국립민속박물관, 1999).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시르다리아, 카라칼팍, 사마르칸트, 호레즘, 부하라 등지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토착민인 우즈벡 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거나 빈 집에 거주하였고 학교, 이슬람 교회 혹은 가족우리에도 거주하였다.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에 대비하여 주택을 지어놓기도 하였는데 이는 바라크(barack)로 3호, 5호 혹은 8호씩 거주하게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었다. 방 하나에 한 가족이 거주하였고 난로를 사용하여 난방과 조리를 하

였으며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다. 이 시기에 거처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땅을 파서 만든 토굴(젬랴카: Землянка)에서 살았다. 토굴은 땅을 파서 바닥을 만들고 구들을 놓아 난방과 조리를 하도록 하였고 땅 위에는 깔(갈대)과 돌 등으로 지붕을 만들어 흙으로 덮은 형태였다. 이 시기에 주택을 짓기도 하였는데 이 때의 주택 재료는 주로 깔 등의 자연적인 것이었다. 지름 4센티 정도의 굵은 깔을 묶어 용마루와 서까래를 이었고 기둥 역시 깔로 세웠다. 지붕과 벽도 깔과 벗짚으로 뼈대를 세운 후 흙으로 도배하였다. 이러한 깔막(갈두막)에서의 거주는 대략 1937년-1940년까지 이어졌다.

각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1937년부터 1938년에 걸쳐 각 지역마다 콜호즈(집단 농장)를 조직하였고 콜호즈 구성원들을 위한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주택 재료는 주로 흙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정한 시기가 경과하면 썩어서 무너지는 깔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흙덩어리를 둥글게 뭉쳐서 쌓아올린 후 옆의 틈 역시 흙으로 회 바름 하는 형식으로 여기에도 역시 구들을 계획하였다. 1938년경에는 정부로부터 나무와 시멘트를 공급받아 주택을 지었다. 이때 지은 주택은 대부분 2, 3칸 주택으로 2칸의 주택은 정지간 1칸과 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지간에는 구들을 놓아 난방과 조리를 겸하였으며 연료는 풀과 깔을 사용하였다. 1942년경부터 벗장(흙벽돌)을 사용하여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의 흙벽돌은 여러 가지 자연재료를 혼합한 것이었다. 즉, 땅을 판 후 흙과 짚, 물 그리고 소똥 등을 넣고 밟은 후 혼합물을 틀에 넣고 모양을 만들어서 햇볕에 말린 후에 사용하였다. 흙벽돌로 지은 이 시기의 주택 역시 2, 3칸의 주택이 보편적이었다. 이후 고려인들이 점차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기존의 주택을 증축하거나 혹은 별도의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이 경우에 기존의 작은 주택은 여름 부엌 혹은 곡식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1950년대에는 주택 건설이 중단되었고 주로 주택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등으로부터 강제 이주가 행해졌는데 이때 많은 이주민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되었고 고려인의 초기 주택이 이들 이주민의 임시 주거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려인의 초기주택은 그 형태가 변화하였고 사라지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 고려인들이 건축한 주택은 거의 러시아 형식이었고 난방 방식 역시 페치카를 도입하게 되면서 구들은 점차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주택의 유형별 요소와 특성

우즈베키스탄의 주택 유형은 크게 단독주택과 아



<그림 2> 1937년 건축한 주택(타슈켄트, 아흐마드야사비 콜호즈)



<그림 3> 깔을 재료로 한 지붕(타슈켄트, 아흐마드야사비 콜호즈)

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 주택 유형별 주거 특성과 주거 생활이 다르므로 연구 결과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의 개요

우즈베키스탄의 주택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도록 주택의 외벽이 약 40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주택 구성은 개별 주택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은 있으나 대개 주택 본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규모의 텃밭과 가축우리, 연료창고, 야외샤워시설, 목욕실(반야), 야외화장실 그리고 여름 부엌 등으로 구성된다. 텃밭에서 가꾸는 상추, 토마토, 가지, 고추, 배추 등의 야채는 자급자족의 원천이며 때로는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텃밭이 없는 도심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국가로부터 교외의 땅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시로 이 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 필요한 야채를 얻는다.⁴⁾

대부분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집에서 닭, 칠면조, 개 등의 가축을 키우는데 이 역시 가족을 위하여 소비하거나 팔아서 소득을 얻기도 한다. 물자가 부족했던 구 소련 시대에는 석탄과 나무 등의 연료를 한꺼번에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연료 창고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대부분의 주택이 이를 위한 창고를 갖추고 있다. 야외샤워시설과 야외화장실은 텃밭에서 작업할 때 매우 편리한 시설인데 주택 내부에 화장실과 욕실이 갖추어진 요즘에도 거의 모든 주택이 갖추고 있다. 목욕 공간은 전통적으로 주택 본체와 분리하여 계획하였으나 점차로 주택 내부에 계획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부엌은 보통 겨울에 사용하는 부엌과 여름에 사용하는 부엌으로 구분한다. 이는 겨울에는 난방 및 조리 열원을 함께 사용하여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조리 열원을 난방과 분리시켜 시원한 공간에서 식사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택이 작은 채와 큰 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개 작은 채가 처음 건축한 주택인 경우가 많다. 즉, 정지간과 1, 2개의 방으로 구성된 작은 채에 거주하다가 경제

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옆에 별도의 큰 채를 건축한 것이다. 기존의 작은 채는 보통 여름 부엌이나 목욕실 혹은 창고 등으로 사용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가스매장량이 많으나 시설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폐치카를 사용하고 있다. 고려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콜호즈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던 구역으로 모두 가스가 연결되어 지상의 파이프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지역이나 고려인 동네가 가장 부유하며 주택 관리 또한 잘 되어있어 고려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더 비싸다고 한다.

2) 단독주택의 구성요소

우즈베키스탄의 단독주택(땅집)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전통주택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택 역시 러시아의 일반주택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⁵⁾

(1) 출입구(그렐쥬: КРЫЛЬЦО)

우즈베키스탄 주택 외관의 특징은 출입구 부분이 주택 본체에서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을 그렐쥬라 부른다. 그렐쥬는 러시아의 전통주택에서 도입한 것으로 지붕만 있는 경우가 있으며 지붕과 함께 벽으로 막은 경우도 있다. 그렐쥬는 장식용 목적 이외에 겨울에 찬 바람이 주택 내부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우즈베크인들은 이 곳에서 신발을 벗고 정리한다. 고려인 역시 그렐쥬 부분에 신발을 벗어두며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이 곳에 신발장을 계획하기도 한다. 그렐쥬는 장식적인 요소로서 현대 주택의 외관에도 적용한다(그림 4).

4) 구 소련 시대부터, 집 주변에 농사지를 땅을 임대할 수 없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교외 지역의 땅을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를 다차(주말농장: ДАЧА)라 부른다.

5) 구 소련 시대에는 전체 러시아 지역에 동일한 주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주택 형식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구 소련에 속하였던 모든 나라의 주택은 그 제도와 형식에서 모두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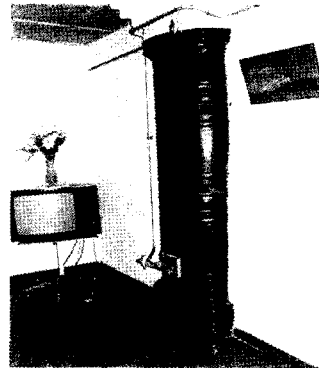
〈그림 4〉 출입구인 그렐쑈와 베란다(타슈켄트, 김안토니아 맥)

(2) 주택 내 베란다(ВЕРАНДА)

조사대상 고려인 주택의 대부분이 출입구(그렐쑈)에서 주택 내부의 복도로 들어가는 사이에 베란다라 부르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주택을 넓히기 위하여 주택 본체에서 덧붙이내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대부분 이 공간에 소파를 놓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가스대 등의 조리 열원을 두고 여름부엌으로 계획하거나 혹은 곡식 창고로 사용하기도 한다.

(3) 페치카(ПЕЧК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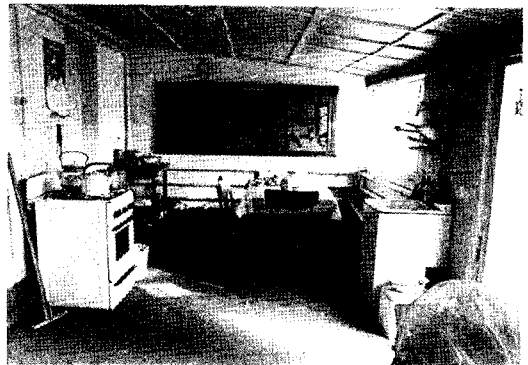
페치카는 러시아의 전통 난방방식으로 러시아 주택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페치카는 나무 혹은 석탄으로 가열한 뜨거운 공기가 벽 안에 있는 공기통로를 통과하면서 주변의 방들을 덥히는 방식으로 이 열은 부뚜막 형식의 조리대의 열원으로 함께 사용된다. 조사대상자들의 주택에는 페치카의 흔적인 벽의 굴뚝과 부뚜막의 흔적만 있었을 뿐 예전의 페치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조사대상 주택 모두 가스를 사용하여 대운 물이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도록 하는 난방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 중 6경우는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개량된 형태의 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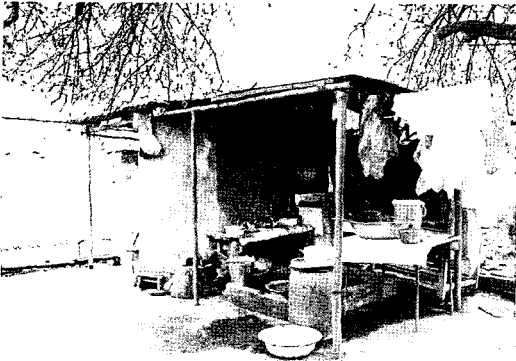
〈그림 5〉 가스를 사용하는 기둥형 페치카(타슈켄트, 김일렉신드라 맥)

(4) 여름부엌(렛나야 쿠힌나: ЛЕТНЯЯ КУХНЯ)와 겨울부엌(zimnyaya 쿠힌나: ЗИМНЯЯ КУХНЯ)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여름 부엌과 겨울 부엌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대개 겨울 부엌은 페치카가 있는 공간에 계획하고 여름 부엌은 별도의 공간에 마련한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대부분 가스 혹은 구들이 있는 공간에 겨울 부엌을 계획하였고 여름 부엌은 마당 한쪽에 가미술을 엮을 수 있는 부뚜막과 조리 공간을 두어 야외 부엌으로 계획한 경우가 많았다. 여름철 야외에서의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마당 한쪽에 담창(평상)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겨울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탁을 밖으로 옮겨 사용하기도 한다(그림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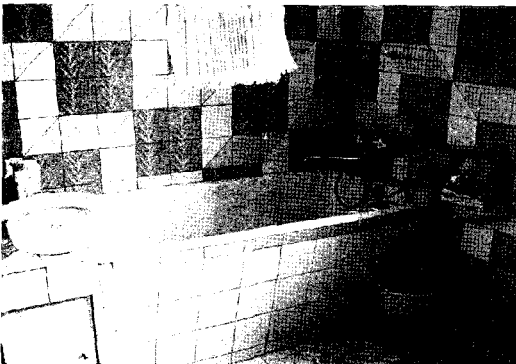
〈그림 6〉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겨울 부엌(타슈켄트, 박다찌애니맥)



〈그림 7〉 마당에 있는 여름 부엌(타쉬켄트, 박다찌이나 맥)

(5) 목욕실(반야: БАНЯ)

반야는 물을 데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목욕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목욕실을 뜻한다. 러시아의 전통 반야는 물을 데우는 전용 페치카가 있으며 이 페치카의 열로 내부에 쌓아둔 자갈을 뜨겁게 만든 후 물을 끼얹어 수증기를 쫓는 증기식 사우나를 겸하는데 전통적으로 별채에 계획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러시아식의 반야가 아닌 욕조와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 한 공간에 계획한 현대식 욕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모두 반야라 부르고 있었다. 4경우는 주택 본체에 그리고 4경우는 별채에 욕실을 계획하였으며 물을 데우는 연료는 모두 가스였다(그림 8).



〈그림 8〉 단독주택의 목욕실(반야: 타쉬켄트, 리철수 맥)

(6) 저장시설(쁘그렙: ПОГРЕ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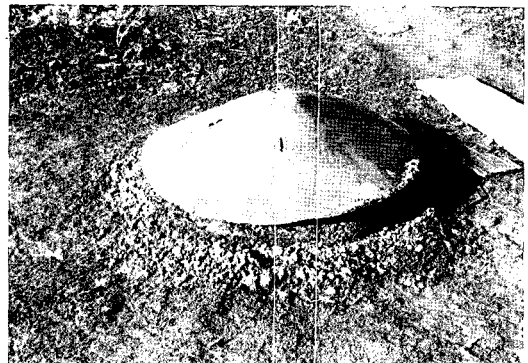
러시아는 겨울이 춥고 길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기초 식량과 저장 식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시설이 발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주택들 역시 땅을 파서 감자, 배추, 무우 등의 야채를 다음 해 수확 때까지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땅을 파서 만드는 저장 공간 외에 주택의 지붕 밑 공간도 옥수수, 석류 등을 보관하는 저장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그림 9).

(7) 개별 텃밭(아가로드: ОГОРОД)

우즈베키스탄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주택의 앞, 뒤편에 개별 텃밭을 가지고 있으며 이 텃밭에는 대개 배추, 상추, 감자, 토마토, 양파, 가지, 고추 등을 재배한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텃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시장에 파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자급자족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변에 사는 자식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 조사대상 고려인의 대부분이 뒷마당에 닭, 오리, 칠면조 등을 키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 역시 자급자족의 수단이 되고 있었다.

(8) 야외화장실(뚜알렛: ТУАЛЕТ)

주택의 텃밭 주변에 야외화장실을 두는 것은 러시아의 전통으로 거의 모든 집에 일반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전통적인 구조는 구덩이를 판 후 나무로 문과 벽을 구성하는데 구덩이가 다 차면 다른 쪽을



〈그림 9〉 마당에 파 놓은 저장시설인 뿌그렙(타쉬켄트, 최계나지 맥)

또 파서 마련한다. 조사대상 고려인 주택은 주택 내의 화장실과는 별도로 대부분 야외화장실을 갖추고 있었고 나무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벽돌과 시멘트로 건축한 경우도 있었다. 주택 내의 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요즘에도 야외화장실을 계획하고 있는 현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볼 수 있는 러시아 주택의 전통으로 간주할 수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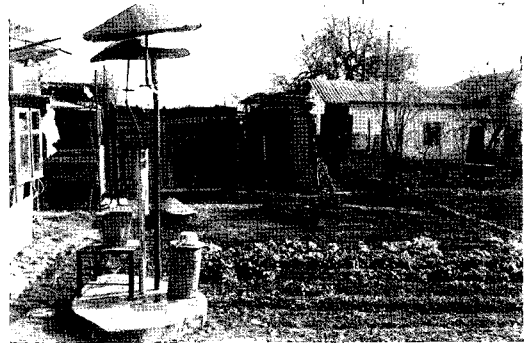
(9) 샤워시설(두쉬: ДУШ)

대부분의 조사대상 고려인 가옥의 마당 한편에는 야외샤워시설이 있었다. 이는 주로 여름철에 사용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나무 박스를 세우고 그 위에 물통을 얹어서 만든다. 물통의 물은 빗물을 받아두거나 혹은 호스로 물을 채운 후 햇볕에 데워서 사용한다. 야외샤워시설은 특히 여름에 발일을 하고 난 후에 간편하게 샤워하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편리하다. 야외샤워시설은 주택 내부에 상수도가 연결된 현재에도 주택 시설의 일부로서 계획하고 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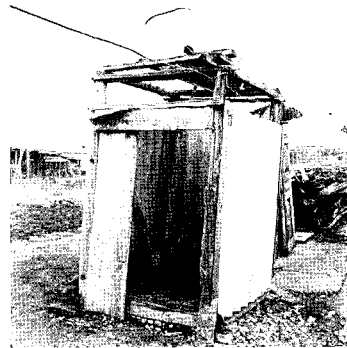
(10) 구들

조사대상 고려인 10가구 중 6경우가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매입한 개량형 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 10가구 중 3경우는 현재 거주하는 본채 이외에 1938년-1940년에 건축한 재래식 구들이 있는 초기의 가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2경우는 초기 가옥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1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역시 구들바닥에 온수파이프를 매입하고 부뚜막의 가열방식을 가스로 변형하여 취사와 식사 및 단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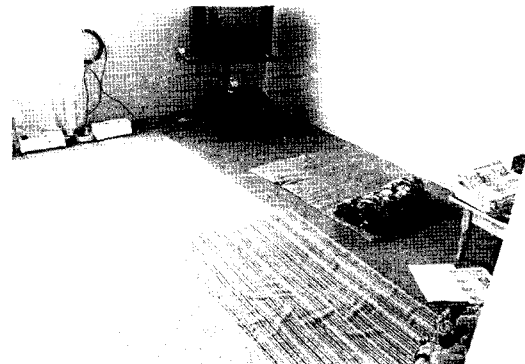
구들이 있는 경우에 바닥에 요를 깔고 취침하는 경우는 4경우였으며 침대와 요를 겸용하는 경우는 2경우로 구들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바닥에서 취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3). 식사는 식사공간을 목적으로 구들을 마련한 2경우 이외에는 모두 러시아의 전통 방식대로 부엌에서 하였다. 그러나 가족이 많이 모이거나 손님을 치르는 경우에는 구들바닥에 고려상을 펴고 앉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이때는 젊은 자녀들을 위하여 목도산⁶⁾도 함께 이용하였다. 구들이 없는 4경우 중 2 경우 역시 가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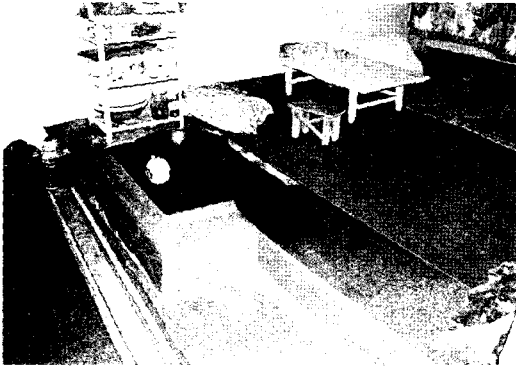
<그림 10> 뒷밭에 있는 펌프와 야외화장실 (타슈켄트, 칭게나지 맥)



<그림 11> 야외샤워시설인 두쉬 (타슈켄트, 박이틀렌 맥)



<그림 12> 바닥에 온수파이프를 깔 구들의 모습 (거실로 사용: 타슈켄트, 양니젤다 맥)



〈그림 13〉 가스를 사용하는 형태로 개량된 초기의 구들방
(부역으로 사용: 타쉬켄트, 김안토니아 씨)

이 많을 때는 고려상을 퍼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고려상은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들의 필수적인 생활 가구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이 구들을 놓은 이유는 주로 가족 단란을 위해서였는데 어린 아이들 역시 구들방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여 따뜻한 바닥이 고려 아이들에게도 푸근한 환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노인 세대는 1937년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할 당시 대부분 구들에서 생활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현재의 주거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구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그 모습은 변화하였으나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단독주택의 주생활

우즈베키스탄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옥 중 최근에 수리를 한 1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이 러시아의 전통 출입구인 그렐쥘을 갖추고 있었는데 모두 이 곳에서 신발을 벗었으며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신발장을 만들어 수납하였다. 구들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바닥에 요를 깔고 취침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취침하는 비율이 높았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부역의 식탁을 이

용하였으나 가족이 많이 모이면 고려상을 펴고 바닥에 앉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거실에 항상 펴놓은 고려상은 가족이나 손님들이 모여서 차 마실 때 사용한다.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조선상 2-3개를 놓고 앉아서 먹는다."(박아나톨리, 72세)

"자식들이 모이면 거실에 고려상을 펴 놓고 앉는다. 자식들은 고려상을 사용하면 다리가 저려서 힘들어 하므로 목독산을 함께 사용한다."(양나젤다, 67세)

조사대상 주택의 대부분이 카펫을 바닥에 깔고 또 벽에 걸어두고 있었다. 카펫을 바닥에 깔고 벽에 거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전통 문화로 벽에 거는 것은 장식의 효과 이외에 찬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고려인들은 친지 혹은 교회를 통하여 반수 정도가 한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통 명절이나 잔치 때에는 주로 여자들이 한복을 입는다.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식사시에는 대부분 포크를 사용하였고 젓가락과 포크를 다 사용하는 경우는 1경우였다. 일상적인 식사의 기본은 밥과 국이었으며 국시(국수) 또한 매우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었다. 모두 김치와 된장을 집에서 담아 먹고 있었고 겨울 김장을 해서 마당에 파묻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 자식과 친지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김치와 장 등 고려음식을 다 해먹었으며 나도 지금껏 45년 동안 직접 다 담가먹고 있다. 이 외에 찰떡과 국수, 각종 시락 장물 등을 다 해먹는다."(러시아인 김발렌티나, 67세)

"겨울에는 김장 김치를 담가서 땅에 파 묻는다."(김알렉산드라, 74세)

가족이 모두 모이는 때는 부모님 생신과 추석, 한식, 단오 등의 전통 명절 띠이며 추석과 한식 때 산

6) '복도산'이라고도 한다. 높이 20센티미터 정도의 나무로 만든 간이 의자로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7) 중앙아시아에서 바닥에 까는 카펫은 발라스(палас), 벽에 거는 카펫은 까보트(ковёр)라고 부른다. 까보트는 발라스에 비하여 섬유질 길이가 더 길고 색상과 무늬가 더 화려한 특징이 있다.

소에 간다. 추석과 한식 때는 찰떡, 증편 등의 전통 음식을 기본으로 차리며 경우에 따라 플로프(볶음밥), 사실릭(고기꼬치) 등의 우즈베크 전통음식을 함께 차리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전통 명절에 이웃 우즈베크 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었으며 우즈베크 설날(321)이나 독립기념일(9.1) 등의 우즈베크 명절도 함께 즐기는 등 일상생활에서 우즈베크 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즈베크 사람들은 고려 사람들에게 구들 까는 법을 배웠다. 고려인들이 살았던 집에 우즈베크 인들이 들어가 살기도 한다. 우즈베크 인들은 구들을 좋아한다. 구들에서 살아왔던 우즈베크 인들은 좋은 집을 지은 후에 구들을 깔기도 한다. 고려인들의 경우는 구들을 사용하는 예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박이클렌, 7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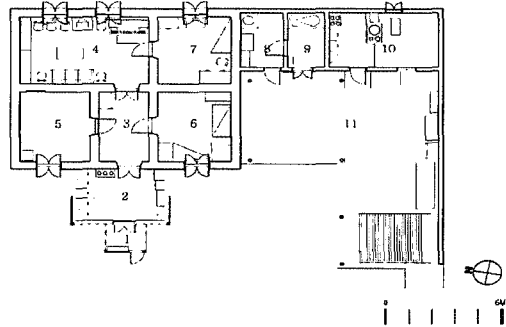
“우즈베크 사람들이 더 고려말을 잘 한다. 우즈베크 사람들도 장을 만들어 먹고, 고려음식 다 좋아한다”(박다찌야나, 76세)

“추석과 단오와 한식에 가족들이 모인다. 추석에는 고려인들이 다 모여서 찰떡, 증편, 김치, 각종 채(나물) 등을 먹는다. 한복은 여자들만 입는다. 단오 때에는 시락 장물과 우즈베크 음식과 고려음식을 섞어서 한다. 추석과 한식 때는 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다. 설날에는 세배는 하지 않는다. 질을 하는 것은 환갑날에만 한다. 설날에는 두대고기(떡국)를 해 먹는다.”(최일리아, 69세)

단독주택에서 소요되는 주거비는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토지세 등이다. 전기세는 미터기로 계산하는데 100kw당 1,300숨⁸⁾으로 주택 크기에 따라 1,300숨-3,000숨으로 다양하였고 평균 1,500숨 정도였다. 모든 조사대상 지역의 난방은 가스였는데 가스세는 평균 3,000숨 이었다. 수도세는 타쉬켄트 콜호즈의 경우는 징수하고 있지 않았고 사마르칸트, 부하라 지역은 1인당 1,000숨이었다. 토지세는 타쉬켄트 콜호즈와 사마르칸트는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무료였으며 부하라 지역은 한달에 500숨씩 내고 있었다.

단독주택 10 경우 중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깔 6 경우 이외의 주택은 모두 라디에이터 난방을 하거나 예전의 원통형 폐치카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금은 24,000 숨으로 대부분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대부분 자식들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2경우가 3대 가족이었는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건강한 동안은 독립적으로 사는 편이 좋다고 하였으며 대부분 자녀들이 주변에 거주하면서 자주 왕래하고 있었다.



〈그림 14〉 타쉬켄트, 김 니콜라이 주택평면도

(1:출입구 2:베란다 3:복도 4:거실 5:온돌방 6:침실1 7:침실2 8:보일러실 9:욕실 10:온돌방 11:작업장)

2. 아파트

1) 아파트의 개요

러시아는 1985년 사회개혁 운동인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모스크바가 중앙 정부로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공화국들 전체의 주택을 건설하고 분배하였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생한 이후 도시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사유주택을 국유화하였고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이 시기에 공급된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 한 호에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부엌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널 아파트(Communal Apartment)였다. 이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는 커뮤널 아파트 뿐 아니라 기숙사 형식의인 세메이노예 오브셰지티예(가족기숙사: Семейное Общежитие)가 함께 공급되었다. 이는 커뮤널

8) 1숨 = 1원

아파트와는 달리 한 호에 한 가족이 살도록 되어 있으나 화장실과 욕실은 역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커뮤니티 아파트나 가족 기숙사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형식으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기 시작하는 1950년대 이후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1955년에 티피칼 프로젝트(Typical Project)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외형이 단순하고 색상과 디자인이 유사한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티피칼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안은 모스크바에서 만든 6-7개의 시리즈(serial)로 구성되었는데 이 계획안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실행될 때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였다. 1960년대에는 따스니지에(Тасничи)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었으며 독립 이후에는 우스리피지에(Узритичие)에서 주택의 계획과 공급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1960년대에 후르시초프의 집권하에 공급된 티피칼 프로젝트 형 아파트를 후르쇼프카(ХРУЩЁВКА)라 하였다. 후르쇼프카 아파트는 대부분 5층으로 벽이 두껍고 방과 부엌의 면적이 작으며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모두 한 공간에 있었다. 이 시기의 주택 분배는 가족의 수와 구성, 그리고 자녀의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행하였다. 1980년대 이후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면서 주택에 사유 재산 개념이 도입되었고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이후에는 국영주택의 거주자들에게 거주하던 주택을 싼 가격으로 혹은 무상으로 불하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영주택이 사유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파트는 1966년에 대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주로 5층이었으나 대 지진 이후 9층 아파트를 건축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그 비율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조립식 패널(panel)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에 우즈베크 전통 문양으로 외관을 장식하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다(그림 15). 최근 짓는 아파트는 전체 면적과 부엌 면적이 넓어졌으며 베란다 면적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베란다는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개조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옆집을 터서 면적을 넓히는 공사도 하고 있다.



〈그림 15〉 1966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티쉬켄트)

2) 아파트의 구성요소

(1) 아파트의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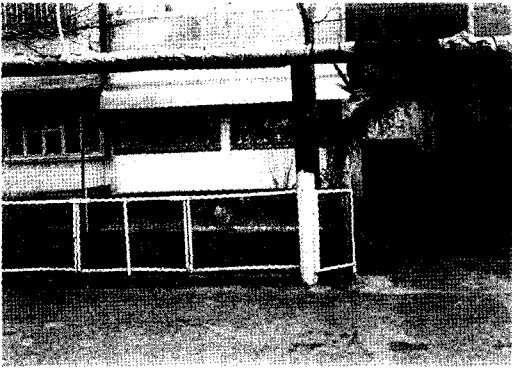
조사대상 아파트의 진입부분은 지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반반이었으며 출입문의 재료는 대부분 나무였다. 우즈베키스탄 아파트는 1층의 경우 앞마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 곳에 텃밭을 일구기도 한다. 1층의 개인 앞마당은 낮은 울타리를 만들거나 혹은 담을 쌓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동 출입구 이외에 주호로 들어가는 개인 출입구를 따로 만들기도 한다. 1층 앞마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그림 16).

(2) 주호의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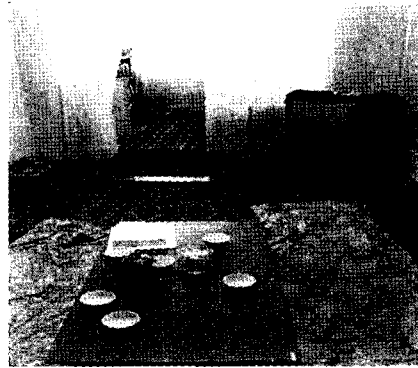
아파트 주호의 출입문은 1개인 경우와 이중으로 된 경우가 반반으로 재료는 나무와 철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는데 대부분 출입문 주변에 신발을 벗어두거나 간이 수납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박이 수납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그림 17).

(3)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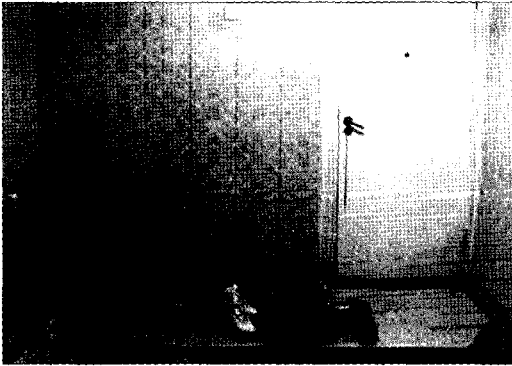
거실은 가족들의 단란장소와 손님을 접대하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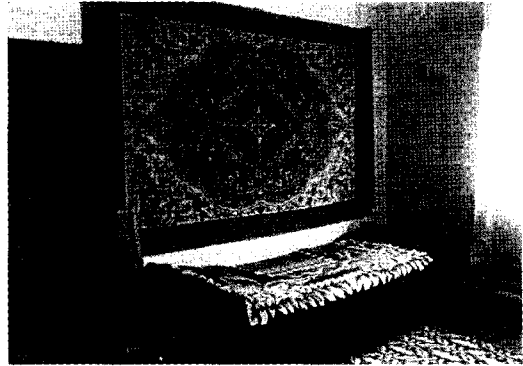
<그림 16> 아파트 1층을 뒷밭으로 가꾸는 예 (사마르칸트, 최부아 맥)



<그림 18> 거실에서 사용하는 고려상과 그루바차 (사마르칸트, 한빅토르 맥)



<그림 17> 출입구의 신발 수납 (부하라, 김안드레이 맥)



<그림 19> 거실의 카펫(까보르와 발라스: 부하라, 김발렌티나 맥)

소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소파를 갖추고 있었고 장식장과 TV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반수가 거실 바닥에 항상 고려상(조선상)을 펴 놓고 있었으며 고려상 옆에는 우즈베크인들의 전통 바닥 깔개인 그루바차(курпача: 솜방석)⁹⁾를 함께 사용하였다. 고려상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 고려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많은 가족원이 모였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웃 우즈베크인들과의 모임에도 고려상과 그루바차의 사용은 일상적이었다.¹⁰⁾ 또한 거실 바닥과 벽에 카펫을 깔고 걸어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그림 18).

(4) 침실

침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가구는 침대, 이불장, 화장대 등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입식 취침을 하

고 있었다. 이불장이 없는 경우는 한 쪽 구석에 이불을 쌓아 천으로 덮어두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그루바차도 함께 수납하였다. 침실 바닥에는 대부분 카펫을 깔았고 침대 옆 벽에는 카펫을 걸어 장식하였다. 벽에 거는 카펫은 장식 뿐 아니라 방음(防音)과 방서(防暑)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그림 19).

9) 그루바차(курпача)는 우즈베크인들이 바닥에 앉을 때 사용하는 솜을 넣은 방석으로 그 길이가 길어 고려상 앞에 펴 놓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다.

10) 우즈베크인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등 좌식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취침 시 침대와 요를 모두 사용하는 한편 바닥에 상을 펴 두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5) 부엌

부엌의 기본 설비는 입식조리대와 식탁 그리고 의자로 구성되며 일상적인 식사는 입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부엌 옆의 베란다가 식사 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2경우 있었으며 베란다에 입식 조리대와 식사 공간을 계획하여 베란다 자체를 부엌으로 개조한 경우가 2경우 있었다.

(6) 욕실

조사대상 아파트의 건축년도는 1963년도-1990년도까지 다양하였는데 모든 경우에 변기가 있는 공간과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대체적으로 좁은 평형의 아파트는 욕조, 세면대, 변기를 한 공간에 계획하며 방 2개 이상의 아파트는 변기를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보통으로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변기를 독립시켜 계획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욕조가 있는 공간에 세탁기를 두고 있었고 이곳에서 손빨래를 겸하였다.

(7) 베란다

조사대상자들은 베란다를 각기 다양한 용도로 계획하여 사용하였다. 베란다 공간을 분할하지 않고 한 공간으로 넓게 사용하는 경우와 베란다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반반이었다. 베란다 공간을 분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부엌 겸 식사 공간 혹은 전용 식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간을 분할한 경우는 서재와 부엌 혹은 침실과 부엌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1층인 경우 베란다 공간을 부엌으로 만들고 부엌 바닥에 저장고를 만든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아파트 하단 부분의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지하를 판 것으로 저장식품 혹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수납한다(그림 20).

3) 아파트의 주생활

우즈베키스탄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는데 출입구에 신발을 벗어두거나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신발장을 두어 정리하였다. 모든 조사대상자가 침대를



〈그림 20〉 베란다를 식당으로 개조한 예 (시마르칸트, 최 부야 맥)

사용하고 있었는데 점차로 나이 들수록 구들과 요를 선호한다고 평가하였다. 식사는 전통적인 러시아의 방식대로 대부분 부엌의 식탁에서 행하였다. 조사대상 6경우 중 4경우가 고려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가족들이 많이 모이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하였고 이웃의 우즈베크 인들과의 모임에도 사용하였다. 1경우는 거실에 항상 고려상을 펴 두고 있어 아파트의 거실에서도 좌식 생활이 행해짐을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 주택은 모두 카펫을 바닥에 깔았고 반 정도는 카펫을 벽에 걸어두었는데 이는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으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의 전통을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거실에 펴 있는 고려상은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TV를 보며 단란을 하는데 사용하며 그루바차와 함께 사용한다. 우즈베크 친구들이 많은데 이들과 함께 모일 때에도 고려상을 사용해서 앉는다.”(한 빅토르, 70세)

“침대는 젊어서부터 사용했다. 60세가 넘어서는 이불이 좋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구들이 좋다. 젊은 사람들은 구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즈베크 인들도 구들을 놓는다. 고려인들이 놓아주는데 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해주는 것이다.”(한빅토르, 70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거의 한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한복을 가지고 있는 1경우는 본인의 생일이나 친지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입고

있었다. 식사 시 대부분 포크를 사용하였는데 부부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는 경우는 1경우였으며 이 경우는 자식들도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대부분 김치와 장을 집에서 직접 담아 먹고 있었는데 지하실이나 차고를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겨울에 김장을 담아 땅에 묻어두는 경우도 2 경우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손 자녀들도 김치와 장을 좋아하여 대부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다.

“김치와 간장, 된장은 집에서 만들어 자식들에게 나누어준다. 지난 해에도 김장을 50킬로그램 해서 밖에 묻어 두었다.”(박르보시, 78세)

“김치는 담그나 된장은 못 만든다. 시어머니가 된장을 만들어 주었으나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안 만든다. 김치는 밖의 땅에 묻어두었다.”(박로자, 5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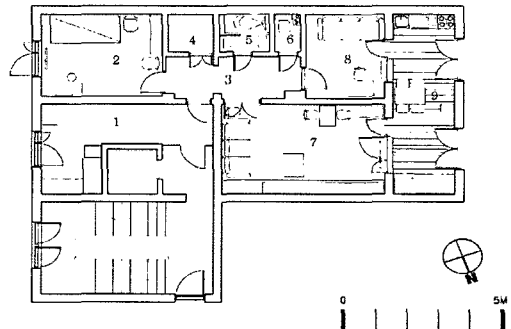
가족들이 모이는 때는 부모님 생신과 추석, 한식, 단오 등의 전통 명절로 한식과 추석에는 조상을 모신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제사 때 차리는 음식은 밥, 찰떡, 삶은 닭, 과일, 달걀, 감자채 등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일상식은 밥과 국으로 가족들이 모일 때에는 국시(국수)나 개장(보신탕) 등을 준비하기도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이웃에 우즈벡 인을 비롯한 러시아인, 따따르 인 등의 다양한 민족들이 이웃이었는데 대부분 오랜 세월동안 이들과 교류하여 왔기 때문인지 서로가 자연스럽게 융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근처 우즈벡 사람들은 다 친구이다. 우즈벡 명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우즈벡 음식 역시 잘 먹는다. 라마단 등의 우즈벡 명절에는 야채, 닭, 밥, 술 등을 가지고 가서 함께 즐기기도 한다”(리알렉산드르비치, 70세)

“우즈벡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려인과 우즈벡 인은 서로 화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장 라이사, 64세)

아파트에서 소요되는 주거비는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운수), 관리세 등이다. 가스세는 평수에 따라 달라지며 전기세와 수도세는 계량기로 환산한다. 전기세는 평균 2,500-3,000숨, 가스세는 평균 3,000숨, 수도세는 평균 2,000숨, 관리세는 평균 2,000숨 정도였

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난방방식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금은 20,000숨으로 대부분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더구나 고려인들은 제사와 생신, 환갑 등의 잔치에 서로 부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고 대부분 자식들의 경제적인 원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개인 텃밭인 다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다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반이 3대 가족이었는데 부모 세대는 대부분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좋지만 젊은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므로 건강한 동안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대부분 자녀들이 가까이 살고 있었으며 교류 역시 활발하였다.



〈그림 21〉 타쉬켄트, 박 라이사 아파트 평면도

(1:창고 2:침실 3:복도 4:창고 5:욕실 6:화장실 7:거실1 8:거실2 9:부엌과 식당)

IV. 결과요약 및 제언

1. 19세기 초반부터 연해주에 거주하였던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하여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고려인의 일부는 미리 준비된 공동주택인 바라크(barrack) 등에 거주하였으나 대다수는 빈 집과 학교, 이슬람 교회 혹은 가족우리 등에 거주하였으며 일부는 토굴을 파고 생활하였다. 1938년경 고려인 콜호즈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주택이 건설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흙과 짚(갈대)을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나무와 시멘트 그리고 흙벽돌을 사용하여 주택을 건설하였는데 보통 2, 3칸의 주택이었고 구들을 놓아 난방과 조리를 겸하였다. 이 시기의 구들 형태는 취사를 하는 아궁이가 있는 정지 부분과 구들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었다. 이는 1860년대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출신지역이 함경도 지역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한반도에서의 주거 형식이 연해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고려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많은 경우가 주택을 증축하거나 주택을 새로 건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의 주택을 창고와 여름 부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라진 경우도 적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은 1937년 당시 8만 여명의 고려인이 이주하였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주지이다. 이 지역에 남아있는 고려인의 초기 가옥은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주거사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의 역사를 정립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초기 가옥의 발굴과 보존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구 소련 시대에는 중앙 정부인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모든 지역에 유사한 주택 제도를 실시하였고 전 지역에 유사한 주택 형식을 공급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아파트의 발전 과정은 다른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공화국들의 경우와 유사하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도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하여 커뮤날 아파트와 가족기숙사 형식의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1950년 이후에는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하여 티피칼 프로젝트가 수행되어 후루쇼프카 아파트가 일반화되었고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가 실시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영 주택이 사유화되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아파트는 전체 면적과 부엌 면적이 커지고 베란다를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독립 이후에는 아파트 외관에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문양을 넣는 등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

은 취침은 침대에서 그리고 식사는 부엌의 식탁에서 하고 있으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생활하며 가족이나 손님과의 모임에는 대부분 바닥에 고려상을 펴고 앉는 등 입식과 좌식을 혼합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전통의 문화가 현지의 다른 문화와 교류하여 현지의 주생활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응해가면서 본래의 전통문화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어 나가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의 좌식문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현지의 우즈베크 민족 역시 좌식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에 다른 CIS 공화국에 비하여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생활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의 경우 외관 뿐 아니라 내부 평면에서도 새로운 요구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면상의 변화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나라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면 형식에서도 매우 다양한 내용의 주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아파트의 발달 과정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민족의 주생활에 대한 비교 연구는 비교문화 관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3. 우즈베키스탄의 단독 주택은 러시아의 주택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건축하여 왔다. 대부분 주택 본체를 중심으로 텃밭과 가족우리, 연료창고, 야외샤워시설, 목욕실, 야외화장실 그리고 여름 부엌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우즈베크 인과 고려인 모두 유사하였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생활에서 우즈베크 인이나 러시아 인과 비교하여 구별되는 특성은 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었다.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들은 이주 초기에 만들었던 재래식 구들의 아궁이를 막고 구들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주택에 온수파이프를 매입한 구들방을 1-2개 만드는 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즉, 한국의 전통난방 방식인 구

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형태와 구조, 사용연료 등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의 바닥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고려인 콜호즈에 일찍부터 가스 공급이 된 배경도 취사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재래식 구들의 형태가 변화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인의 생활에서 식사와 가족단란 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들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생활 속에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 문화이다. 앞으로 세대의 교체와 함께 구들의 전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곧 실제적인 사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우즈베크 인들이 주택을 신축할 때 구들방을 계획하는 등 구들에 대한 선호 정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고려인 이웃을 통한 경험이 주 원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구들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타 민족과의 문화 교류 면에서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일상식은 밥과 국이었다. 대부분 김치와 장을 집에서 담가먹고 있으며 겨울에는 김장을 해서 땅에 묻기도 하였다. 김치와 장 등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는 나이 많은 세대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김치와 장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김치와 장은 최근 들어 우즈베크 인들도 점차 선호하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고려인의 명절에 우즈베크 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가족들이 모이면 국수(국수)나 개장을 잘 해 먹으며 추석, 단오, 한식 등의 명절에는 찰떡, 증편 등을 기본적인 음식으로 만드는데 때로는 플로프(볶음밥)등의 우즈베크 음식을 함께 해서 먹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들의 음식 문화는 우즈베크 식과 러시아식 그리고 한국식이 함께 섞여있는 혼합식으 볼 수 있다. 다양한 민족 사이에서의 문화교류에서

음식문화의 교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려인과 타 민족과의 교류가 활발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많은 교류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보여진다.

5.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타 민족과 매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특히 우즈베크 인들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1937년 강제이주 당시 현지 민족이었던 우즈베크 인들의 많은 도움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나이 든 세대일수록 그 친밀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고려인이 추석, 한식, 단오 등의 전통명절과 함께 우즈베크 설날(3.21)과 독립기념일(9.1) 등의 우즈베크 명절 그리고 여성의 날(3.8)과 같은 러시아의 명절을 지키고 있었으며 타 민족들을 초대하거나 혹은 초대받아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기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을 포함한 100여개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로 각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가 서로 혼합되어 다양한 면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크 거주 민족들의 명절에 행해지는 다양한 행사와 음식의 교류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명절 문화는 앞으로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고려인과 우즈베크 거주 민족들이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 주거요소는 담창(평상)과 구루바차(솜방석), 목도산(목독산), 다스따라한(고려상), 그리고 구들 등이다. 이러한 주거요소는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좌식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파생된 요소들로 우즈베키스탄의 지배 민족인 우즈베크 인들이 좌식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주거요소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고려인과 우즈베크인을 비롯한 타민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거 요소에 대하여 그리고 이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주거 문화에 대한 심층연구가 앞으로 요구된다. 이는 각 민족의 정체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간의 융화와 전이 요소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낳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19세기 초부터 연해주에 거주하였던 고려인들이 1937년에 강제이주한 대표적인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하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거와 주생활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거와 주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앙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로 그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각 지역별 차이와 공통점을 찾는 심층 연구가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1999). 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외교통상부(2001). 재외동포현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우즈베키스탄 편람.
- 한길사 편집부(1992).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을 이는 사전. 한길사.
-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 김 예비게니 예브게니예 비치 편저, 김명호역.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상해, 이진현(2003). 연해주 지방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1).
- 이영심, 조재순(2003). 문헌자료를 통해 본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 대한가정학회 제 56차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85.
- 조재순, 이영심, 이정규, 이선희(2003).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 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101-107.
- 이영심, 조재순, 이상해(2003).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59-71.
- 이영심, 조재순(2004).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 - 연해주(Yunhaju: 沿海州)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5(1), 51-62.
- П. Ким (1993). Корейц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 И.С. Болджурова История (2003). культура и быт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Бишкек.

(2004년 4월 30일 접수, 2004년 6월 8일 채택)